

Station F 운영 현황 조사 보고

(2019.5.17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쓰사무소)

□ Station F 개관

- STATION F는 프랑스 13구에 위치한 건물을 개조해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3만4천㎡, 약 1만285평)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1929년대에 프랑스 엔지니어 외젠 프레시네 Eugene Freyssinet가 디자인한 건물(철도차량기지, Halle Freyssinet)을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윌모트 Jean-Michel Wilmotte가 개조해 만들었음
 - 프랑스 기업가이자 통신사 프리 창업자로 알려진 자비에 니엘 Xavier Niel이 사비 2억5천만 유로를 투자해 스테이션 F를 완성
 - (연 혁) 2013년에 시작된 Station F 건립은 2017.6.29(목)에 개관
 - 2013, 자비에 니엘은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공간을 창출하려는 아이디어로 Halle Freyssinet를 매입
 - 2014. 10월, Wilmotte & Assocites 건축회사에서 관리되는 건축현장을 관계 기관에 공개
 - 2015. 10월, 록산느 바르자 Roxanne Varza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선정
 - 2016. 5월, 록산느 바르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할 9명의 팀원 선발
 - 2016. 6월, 동 사업지의 이름을 'Station F' 로 명명
 - 2016. 12. 5 ~ 2017. 2. 5, 1차 스타트업 지원 접수
 - 2017. 6. 29, STATION F 개관
- ※ 개관행사에 마크롱 대통령, 파리시장,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등 참석
- ※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혁신가, 투자자들의 활동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유럽(전세계)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강조

□ Station F 시설 현황¹⁾

- (규 모) 가로 310m×세로 58m,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데스크, 8개 이상의 이벤트 공간, 60개 이상의 회의실, 콘퍼런스 홀, 제작 실험실, 우체국, 은행, 팝업 스토어, 30개 이상의 개인 샤워실, 카페, 레스토랑, 100개실의 공동 아파트(신축중) 등
 - 업무, 이벤트, 회의, 행정지원, 제품개발, 커피숍, 대형 레스토랑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하도록 시설 배치
- 공간구성 : 총 3개 Zone으로 구분
 - 건물은 크게 네트워킹을 위한 셰어존(Share Zone), 업무를 위한 크리에이트존(Create Zone) 그리고 휴식과 식사를 위한 칠존(Chill Zone) 등으로 나뉘며, 가까운 거리에 거주공간이 조성 중에 있음
 - **Share Zone**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업공간으로 주요 벤처캐피탈(VC), BPI France, Business France 등 공공부문 유관기관들이 입주하여 네트워킹, 투자 등 맞춤형으로 스타트업 지원
 - ▶ 다양한 이벤트 공간들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들이 있음.
 - ▶ Anticafe(시간단위로 지불하는 협업 커피숍)와 우체국 등 2개 구역은 일반에게 공개
 - ▶ 8개의 이벤트 공간 중 6개가 셰어존에 있으며, 370개 좌석을 가진 오디토리엄과 브레인 스토밍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룸이 있음.
 - ▶ 기업지원서비스 기관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프렌치 텍(French Tech)’이라고 함. 프렌치 텍을 통해 35개 주요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작업공간 등이 갖추어지 텍 랩(Tech Lab)이 있고, 아마존웹서비스나 젠데스크 같은 테크 기업과 벤테크, 키마벤처스 같은 벤처투자사(VC)를 위한 사설 사무실이 있음

1) 프로젝트 책임자인 록산느 바르자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시설들, 즉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회의실, 이벤트 공간 및 크리에이터 존 등은 스타트업들에 의한 테스트와 평가를 통해 디자인 되었다고 하였음. 또한 누구든지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함.

- **Create Zone** : Station F의 중추 공간으로 스타트업만을 위한 3,000개의 작업공간으로 구성
 - ▶ 하나의 데스크(desk)가 하나의 작업공간을 구성, 작업공간들은 30여개의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음.
 - ▶ Station F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스타트업 조직, 대학, 기업들이 운영하는 3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스타트업들은 프로그램에 등록을 통해 Station F에 입주



〈크리에이터 존(사진 : AFP)〉

- **Chill Zone** : 휴식과 식사를 위한 공간.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
 - ▶ 1,000개의 좌석을 가진 3,500㎡ 규모. 빅마마(프랑스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레스토랑)에서 La Felicita라는 이름으로 매일 5,000명 이상의 고객을 목표로 식당(5), 커피숍(1), 푸드 열차(2), 바(3)를 운영
- ※ 인근 이브리(Ivry sur Seine) 지역에 600명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거주 공간 신축 중(2019 개관 예정), 최고급 호텔 및 유스호스텔도 계획 중
 - ▶ 3개 건물에 100개의 공동 거주 공간으로 이뤄질 숙소는 스테이션 F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브리 쉬흐 센느’에 지어지고 있으며, 2019년 완공되는 이곳은 약 600여명의 창업가들이 생활할 수 있음
 - ▶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부터 카페와 바도 거주 공간에 포함돼 있음

□ Station F 프로그램

- 스타트업들은 학생들이 특정 전공학과에 응시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같이, 특정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업무데스크를 할당받을 수 있음.
 - 각각의 프로그램은 의료기술, 핀테크, 사이버보안,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 산업 주제별 또는 국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 등 스타트업의 특성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
 - Station F는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STATION F 자체 프로그램(2), 외부 파트너들에 의한 프로그램(31)으로 분류
 - 각 프로그램별로 할당된 업무데스크가 있고 자율적으로 관리되나, 모든 프로그램은 워크샵, 이벤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캠퍼스 전체에 기여토록 설계되어 있음.
- Station F 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의 90% 정도가 다른 창업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
 - ▶ 멘토나 코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built by startups for startup)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담 멘토나 필히 참석해야 할 미팅이 없음.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파운더스 프로그램과 파이터스 프로그램이 있음
 - **파운더스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 ▶ 평균 매년 200개의 스타트업이 선발되고 있으며, 최소 3개월 입주 요구, 직원이 15명에 달할 때까지 입주해 있을 수 있음.
 - ▶ 입주비용은 데스크 하나 당 월 195유로
 - ▶ 선발된 스타트업의 40%가 여성 창업자, 30%는 외국 국적의 창업자
 - ▶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1개국 100개 기업이 선발위원회에 참여

- **파이터스 프로그램** 이민자, 난민, 저소득층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를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 ▶ 1년 동안 파운더스 프로그램과 동일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 선발기준은 파운더스 프로그램과 동일하나, '왜 파이터스 프로그램에서 당신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항목이 추가됨.
 - ▶ 201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6개월마다 선발. 최초에는 13개 스타트업이 선발되었음.

○ 파트너 프로그램

- 대학(Insead, HEC paris 등), 기업(Facebook, MicroSoft, Naver 등), 스타트업 지원 조직(Shakeup Factory, Creative Valley 등) 등이 산업분야나 스타트업 특성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선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파트너들은 일정 데스크를 할당(데스크당 약 200유로/월 임대료 지불)받아 선발된 스타트업들에 제공
- 스타트업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프로그램 주체나 내용에 따라 상이
 - ▶ BNP Paris 프로그램은 무료, Creative Valley는 700유로/월 등 상이, 일반적으로 300~400유로/월이나 대기업 운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저렴, 일부 1,000유로/월 이상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함.
- 프로그램 마다 참여 기간이 다르나(BNP Paris 12주, Naver 6개월, Creative Valley 3개월~1년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있어, 현 프로그램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기도 함.

○ 제공 서비스

-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 팀을 운영하여 프로그램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 Station F 자체로 25명의 팀원이 있으며, 파트너 프로그램별로도 팀을 두어 스타트업들을 지원
- Station F의 시설, 이벤트, 자문, 행정 서비스 이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해당 분야 기존 대기업과의 연계, 투자자와의 접촉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Station F 운영 성과²⁾

- Station F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나 세계적인 관심, 많은 입주 신청, 입주 스타트업의 다양한 구성 등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음.
- ‘17.10월부터 7개월간 5,125명이 캠퍼스 투어방문(월 600명), 2,400명이 프렌치 텍에서 면담³⁾
 - 방문자 중에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룩셈부르크 대공, 홍콩 행정 수반 등의 정치인과 페이스북 COO, 오라클 CEO 등 다수 기업가 포함
- 약 1년간 Station F 프로그램에 지원신청을 한 스타트업은 11,271개로 9%의 비율로 선발되었음.
 - 외국 스타트업 신청 33%(미국 34%, 영국 17%, 중국 15%, 인도 10%)
 - 1년간 1,034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했으며, 입주 직원은 4,882명에 달함
 - 파운더스 프로그램의 경우, 선발된 스타트업 중 40%가 여성 창업주임
 - 50% 이상의 스타트업이 창업된 지 3년 미만(1년 미만이 37%)
 - 업무영역은 B2B SaaS가 압도적으로 높고, AI, B2C consumer apps, Ecommerce, Mobility 순임
 - 입주 직원의 평균 연령은 30.9세, 85%가 석사 이상 학위 소지, 43%가 기술분야 종사, 39%가 무임금, 634명은 외국 국적 소지자임.
- Station F에 입주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기업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꼽고 있음.
 - 이와 함께, Station F 제공 워크숍과 지식, 가시성(visibility), 프로그램 제공 인맥이나 투자처 정보, 행정지원 등을 입주신청 동기로 꼽고 있음

2) STATION F에서 2018년 6월 개관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이와 관련 룩산느 바르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Station F is becoming a destination now.”, “When people come to France or to Europe, they now come to Station F.”, “People are really paying attention to our startups … that's giving them a huge visibility and credibility that they didn't have previously.”

- 232개 스타트업들에서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채봇 관련 스타트업을 SAP에 인수하는 등 8개의 스타트업이 인수된 반면, 활동을 정지한 스타트업은 1.7%에 불과
- 연간 Station F의 운영비로 약 800만 유로가 소요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파트너 기업들에 대한 데스크 임대비를 수입으로 충당
 - Station F에 따르면, 면적대비 임대료 수준은 파리 시내 사무공간 임대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정도라고 함

□ Station F 사례의 함의⁴⁾

- Station F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민간 주도 사업**으로 입주자격 등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성과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Station F 입주 스타트업 선발시, 기업의 규모나 이력이 아닌 창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평가
 - 정부주도 창업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작업이 없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함
 - Station F에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점이 한국 내 창업센터에 비해 좋다고 함
- 아울러, Station F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파트너 기관들과 스타트업들의 참여 동기를 자극
 - 세계 최대 창업허브, 기존 역사 건물의 재생, 에콜 42를 개설한 건립자, 영어 사용, 외국 스타트업에의 개방 등 혁신적인 이미지 마케팅으로 개관 이전부터 홍보가 이루어졌음

4) Station F 팀원, 파트너 기관에 근무 직원, 스타트업 입주자, 언론 기사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하였음.

- 대기업에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 혁신 이미지, 트렌드에 대한 감각 유지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도 Station F 입주 자체가 주는 혁신 이미지 홍보도 입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⁵⁾
- 1,000여개의 스타트업과 이를 둘러싼 대기업이나 대학, 행정지원 기관, 기존 기업이나 투자처와 연계 등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일한 장소에 모아 놓아 **대규모 네트워킹 체계**는 물론 창업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음식부터 화장품, IT, BIO, 블록체인 등 모든 산업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입주, 개방된 데스크에서 상호 네트워크 가능
 - ▶ 테크놀로지 기업 중심의 실리콘 벨리에 비해, 다양한 산업분야가 입주해 있는 Station F가 더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음.
 - 기존 기업 및 투자처와의 연계, 신속한 행정서비스, 법률·회계 등 전문가 자문, 영어 사용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환경조성
- 외국출신, 여성, 사회적 약자 등의 입주 우선으로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창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프랑스 스타트업 환경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 출신 창업자들에게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2017년 파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의 11%가 외국 출신인 반면, 런던은 42%, 실리콘벨리는 44%가 외국 출신임(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 Station F는 이전까지의 창업센터들의 문제로 입주 업체들이 국적, 사회계층, 학력 등에서 획일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다고 인식⁶⁾

5) 한국 입주업체는 Station F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Station F에 있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와 홍보효과라고 하였음.

6) 록산느 바르자 포브스 인터뷰 : “We need to make sure we’re making innovations that matter, and the only way we’re going to do that is if we have all kinds of people working on all kinds of projects.”, “If everybody on campus had the same M.B.A. from the same type of school, they’d all be working on the same kind of projects and that would not be as interesting.”

- Station F는 파이팅스 프로그램, 영어사용, 여성 및 외국출신 스타트업 입주 우선 등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 사회적 약자나 외국 출신 스타트업들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는 등 Station F에서 기대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보이고 있다고 함⁷⁾
- 네트워킹 중심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구개발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에는 적정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음.
 - 개방된 데스크와 업무환경은 입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에는 도움이 되나 연구개발에 집중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함.
 - 프로그램 또한 입주 스타트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스타트업 창업자가 적극성이 부족한 경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함.
 - 불어 사용이 불편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단기간에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네트워킹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 이외에 Station F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레스토랑 입점업체(La Felicita)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가성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음.

7) 관련기사(포브스) : Even Varza's expectations of startup life have been challenged for the better. She had some preconceptions, for example, that startups would want to work nonstop, at night and even on the weekend. "There are some, but it's not the majority," says Varza. "The majority actually tend to work normal working days."